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며칠 새 가을 기운이 완연해졌다. 푸른 하늘은 명징하다. 구름은 한가롭다. 산기슭에 구절초 꽃은 하늘거리고, 물가에 무리를 이룬 어여쁜 여주는 가을의 전령 같다. 대기가 맑으니 가지거리가 한껏 길어진다. 서울 남산타워에서는 인천 바다가 눈앞에 있는 듯하고, 파주 통일전망대에서는 개성이 손에 잡힐 것 같다. 먼 풍경이 가까이 다가올 때 황재를 한 듯 기분이 좋아진다. 살아서 이런 가을을 맞으니 나는 그럭저럭 운 좋은 인생을 산 셈이다.

아침에는 강낭콩을 넣고 햅쌀로 지은 밥에 갈치조림을 먹었다. 갈치와 함께 얼큰하게 조린 가을무가 달다. 가을별 드는 창가에 앉아 가르랑거리는 고양이들 무릎에 앉히고, 볏빛 또는 남천나무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운 좋은 인생을 살았다 해도 좋으리라. 해질녘 아이를 부르는 어머니, 기침하는 사람들, 입원한 혈액투석 환자들,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남자, 쫓 달라고 생떼를 쓰는 아기를, 사랑을 잃는 다양한 청년들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며 사랑하고 기도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고슴도치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간다. 사람으로 사는 한, 잔디 깎는 기계에 끼여 죽는 일은 생기기

운 좋은 인생

않을 테다. 게다가 먼 고장에 인심이 후한 고모들 두엇이 살아 있고, 그 고모의 딸들이 잘 웃는 처녀들이라면 세상은 더욱 살 만할 것이다.

어렸을 때 이웃에 진주구 고향인 아주머니가 살았다. 남편은 큰 요릿집에서 일하는 요리사였다. 그 아주머니와 어머니는 자매처럼 사이가 좋았다. 두 집 다 가난한 살림을 꾸리고 있었지만, 가진 것을 자주 나누었다. 그 남편이 간혹 요릿집에서 남은 음식을 가져올 때도 우리 집과 나누곤 했다. 한번은 처음 먹는 생선 요리였는데, 깜짝 놀랄 만큼 맛있었다. 그 집은 아들만 셋이고 그중 한 애는 내 또래였다.

세월이 오래된 탓에 그 아주머니의 얼굴은 잊었지만 그 아주머니의 아름다운 진주 말씨는 잊지 못한다. 아주머니 목소리의 맑은 울림과 진주 말씨는 정말 좋았다. 귤가에 맑은 은종이 울리는 듯했다. 몇 년 뒤 그 분이 죽었다. 일요일 종교 집회에 참석하려고 나섰다가 횡단보도에서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떴다고 한다.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그 누구의 고의는 없었을 것이다. 가끔 죽은 아주머니를 생각한다. 요릿집 요리사였던 그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 남은 아이들은 잘 살고 있을까?

필립 라킨의 시 중에 '잔디 깎는 기계'가 있다. 시인이 겪은 일을 마치 보고서처럼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적으로 드러낸 시다. "잔디 깎는 기계가 멈췄다, 두 번째다./ 무릎을 꿇고 들여다보니/ 칼날 사이에 고슴도치가 끼여 있었다./ 죽어 있었다./ 긴 풀 속에 있었던 것이다." 잔디를 깎다가 고슴도치를 죽인 이야기다. 이 고슴도치와는 안면이 있고, 먹이를 준 적도 있건만, 고슴

도치는 잔디 깎는 기계에 끼여 죽었다. 신이 잠깐 한눈을 팔았던 것일까? 고슴도치에게 이 죽음은 비명횡사였을 것이다. 고슴도치의 죽음에 대한 가느다란 죄책감이나 회한이 없지는 않았을 테니, 시인은 "이제 눈에 띄지 않는 그 세계를/ 내가 망가뜨린 것이다"라고 쓴다.

수레국화가 피는 가을이 오고, 천둥과 벼락이 울려 퍼지는 이 세계에서, 약간의 열망과 약간의 불안을 안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살아 있는 것은 기적이고, 건강을 누리며 사는 것은 운 좋은 인생이다. 다만 그 기적은 노력해서 얻어 낸 것이 아니라 우연이 빚어낸다. 이 가을에 넘치는 빛의 격려, 작은 꽃들의 위로가 없다면 인생은 삭막했을 것이다.

한 시인이 썼듯이 나는 다른 나라,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태어났기를 바라지 않는다. 지금 여기가 내 현존의 자리다. 나는 그것에 만족한다. 다만 나는 실수로라도 세계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운 좋은 인생을 살고 싶다. 정강이뼈가 부러져 살갓을 뚫거나 교통사고로 몸이 깨지고 부서져 생과 작별하는 불운 따위는 피하고 싶다. 오, 그게 내 뜻대로 될 일은 아니지.

하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실재와 작은 불행, 살아 있음이 일으키는 번민을 견뎌 내며 살겠다. 통장 잔고가 비었다고 비탄에 빠지지 않는 말자. 삶이 늘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애초에 삶은 우연의 조화가 빚어낸 사태일 뿐이다. 꽃처럼 고운 단풍이 들어가는 이 가을, 당신이 고슴도치나 해파리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 있다는 거 자체가 당신 인생이 기차게 운이 좋다는 증거다.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 사회복지회 부국장

독점과 공유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엄청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또 그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다. 독점과 공유의 가능성은 거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분석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시키기도 한다. 또한 독점과 공유는 불평등을 만들기도 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삶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존재가 이 독점과 공유를 통해 차별받기도 하고 존중받기도 한다. 독점과 공유는 미시적으로,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기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를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어떤 정보나 물건의 독점은 이기적인 개인의 이익 추구처럼 쾌락으로 끝나버리지만, 공유는 분배와 공동선의 실현으로 그 가치를 더 확장시킨다. 독점은 불로소득을 통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분열과 차별의 폭력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공유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희망의 사회, 곧 통합된

독점과 공유

사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혹자는 '다 부자일 수 없고, 다 가난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며 다 똑같은 수 없다는 논리로 독점이라는 쉬운 방법을 택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서로를 살리는 공유가 담이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유할 것이며 어떻게 모두가 수궁할 수 있는 공유를 실현할 것인가이다.

마르코 복음 9장 3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라. 앓는 이들을 일으켜 주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쳐 받았으니 거쳐 주어라"라고 말씀하셨다.

권한을 받았던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은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받았으니 무상으로 주라는 말씀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들만의 전유물인양 권한을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데,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이 아닌 공유를 위해 자신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자주 예수는 제자들에게 탐욕을 경계하고, 공유하지 않고 독점하여 자신의 힘을 유지하려는 기독교자들이

의 노력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권한을 공유하지 않고 독점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누가 더 높은 지에 대한 제자들의 다툼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결국 독점은 기독교 유지를 위한 야심과 탐욕이 그 뿌리에 자리하고 있어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폭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런데 공유는 우리가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편적 성장을 위한 기회를 서로에게 열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독점을 통해 얻으려는 인생의 단편적 쾌락에 주저앉지 말고 공유를 통해 후회하지 않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더 나은 것이다.

우리는 역사 안에서 수많은 교훈을 얻었다. 종교 개혁, 시민 혁명, 세계 전쟁에서 독점과 공유의 사이를 오가며 겪어야 했던 고통과 죽음의 역사에서 결코 독점이 아닌 공유야말로 우리를 서로 살리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껴 왔었다. 독점과 공유의 결과는 분명하다. 독점의 결과는 서로의 삶을 파멸할 것이고 공유의 결과는 서로의 삶을 보호하고 창조 질서를 이어갈 것이다. 그런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부분에서 독점을 향한 기독교의 폭력은 여전히고, 이러한 독점에 의해 발생되는 폭력과 차별을 막기 위하여 공유하려는 사람들의 정당한 싸움은 여전히다. 그래서 독점과 공유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형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싸움에서 어느 쪽에 내 삶의 가치관을 둘 것인가?

광양항, '스마트 항만'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해야

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광양항을 스마트 항만으로 발전시켜 세계 항만의 자동화 및 스마트화 수준과 격차를 좁히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2-2단계와 3-1단계 총 8선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컨테이너부두인 2-1단계를 자동차부두로 기능을 전환하고 자동차부두로 운영되고 있는 3-2단계(4선석)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와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26년까지 총 사업비 5940억원이 투입된다. 항만 자동화 장비를 비롯한 운영 시스템, 통신, 운영 시설 등을 도입하여 4선석(5만 톤급 3선석과 2만 톤급 1선석)의 한국형 완전 자동화 부두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양항의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는 국내 최초로 전 영역이 완전 자동화된 부두이며, 운영 실적과 축적된 경험을 통해 전해 신항 등 국내 주요 항만에 완전 자동화 항만 구축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광양항 자동화부두는 향후 안정적인 스마트항만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다.

스마트 항만이란 물류 작업의 자동화를 위한 로보틱 항만(Robotic Port)과 항만 내 화물·선박·차량·장비·시설·시스템 등 각 자원들의 촘촘한 연결을 통해 정보의 수집·분석·예측은 물론 전달과 실행을 수행하는 지능형 항만이 복합된 항만이다.

따라서 광양항을 스마트 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는 항만 내 물류 자원을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연결하여 화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5G 통신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전 세계 수백 만 컨테이너에 대한 문서를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위치와 상태 정보를 발생시키고 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디지털 항만 인프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 변동에 대한 대책, 데이터 수집 관련 법·제도 정비 등 부가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컨테이너 항만의 자동화는 컨테이너 취급 단가를 낮춰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더 나아가 광양항을 스마트 항만으로 구축하면 터미널 시설과 장치장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선, 시간 절감,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최소화 등 항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해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남의 발전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점점 커져만 가는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추세와 해운 동맹의 영향력 강화, 물류의 규모화, 미래에 실현될 완전 무인 자율 운항 선박의 기항 등에 대응하고 광양항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양항의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조속히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社說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 개선 시급하다

농어촌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로 일손이 딸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년 인구 감소와 3D 업종 기피로 평소에도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 역시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실 농어촌과 중소기업은 부족한 인력난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한 지 오래다. 정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E-8비자)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일반고용허가제'(E-9비자)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끊기면서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한계 수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실적이 2년간 전혀 없는 실정이라서 일손 구하기 전경이 벌어지고 있다. 완도군의 경우 미역과 다시마 수확에 맞춰 3년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을 신청했지만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전남도가 최근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해 시군이 직접 해외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해 달라는 것이다. 단일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계약을 확대해 허용 작물 범위를 넓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관계 당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어선투수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 제도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 현행 20%인 비수도권 지방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40%로 올리고 청년 인구 비율이 낮은 지자체에 일반고용허가제 가점을 군의 경우 미역과 다시마 수확에 맞춰 3년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을 신청했지만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기대 모으는 광주 연고 첫 프로 여자배구단

광주를 연고로 하는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여자배구단'이 창단돼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명실상부한 프로배구 시대가 열리게 됐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는 어제 광주시청에서 창단식을 열고 여자 프로배구 일곱 번째 구단으로 출범했다. 광주 연고 프로배구팀 창단은 남녀를 통틀어 처음이다. 아울러 한국배구연맹(KOV) 여자부에 신생팀이 등장한 것은 10년 만이다.

AI 페퍼스 창단으로 동계 실내 스포츠 불모지 광주는 배구 저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팬들은 인기 스포츠인 여자배구를 광주에서 즐길 수 있게 됐고 전남·북과 영남권 팬들까지 유입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김천과 대전은 각각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과 KGC인삼공사 프로배구단을 지역으로 유치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AI 페퍼스는 치평초·광주체육중고·목포여상 출신 우수선수들이 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등 배구선수 연계 육성역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AI 페퍼스는 최근 광주체육고 이은지 선수를 공식 드래프트와는 별도의 수련 선수로 영입하기도 했다.

이제 광주시와 광주배구협회는 AI 페퍼스가 연고팀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AI 페퍼스의 모기업인 페퍼저축은행은 수도권에 주력 영업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광주를 떠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광주와 연고지 협약이 5년으로 묶여 있지만, AI 페퍼스가 광주를 보듬자리로 여길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배구 팬들도 AI 페퍼스가 광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광주 홈경기장 열릴 때마다 경기장을 찾아 응원을 보내는 것도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無等鼓

"흥년이 되면 입 하나 달기 위해 어린이를 버리기 일쑤였다.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았을 때, 청계천에 유기하는 일도 있었다."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실린 내용이다. 이처럼 조선 후기 서민들은 흥년과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자식마저 버리는 일이 잦았다.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난 아기들을 개천이나 다리 밑에 유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현대에서도 갓 태어난 영아나 유아를 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대부분 미혼모 부 또는 연인들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지른 때문이 많은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출산이 진행될 것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이다. 조선시대에는 버려지는 아이에 대한 문제를 왕이 직접 관리하는 중대 사안으로 취급됐다. 목민심서 '애민' 편에는 "명종 3년에 굶주린 백성의 버려진 아이를 다른 사람이 거둬 기를 경우 영구히 그 기를 사람에게 속하도록 한 법을 지키도록 거듭 명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현종 3년 전국 각지에 유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기록돼 있다.

버려진 아이

특히 '속대전'에 규정된 "흥년에 버려진 아이를 다른 사람이 거둬 길러서 자식을 삼거나 노비를 삼는 것을 허락하되, 어린이의 연령과 거두어 기른 시일의 기한을 정하는 문제는 전부 규정에 따르면"처럼 입양이나 노비로 삼을 경우의 조건이나 규칙도 있었다.

정조대왕은 버려진 아이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왕은 암행어사를 파견하면서 "지난번에 내가 버려진 아이가 있으면 거두어 기르고 기른 아이들의 수를 매일 보고하도록 했다. 수령만 자가 마음을 다해 살행하고 있는지, 버려진 아이를 키워주고 관가에

보낸 곡식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조사하라"는 밀지(密旨)를 내리기도 했다.

얼마 전 영주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비정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하지만 이제 처벌만 이능사는 아닌 듯하다. 국가가 버려진 아이를 직접 양육하거나 나아가 부모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선진국처럼 법적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시설에서 양육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때이다. /재희송 사회부장 chae@

기고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부두가 2026년까지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통해 완전 자동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정부의 항만 정책 방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디지털 항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항만 물류의 디지털화·지능화를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항만과 지역 간 상생에 통한 항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해운·항만 물류 분야도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항만에 완전 무인 자동화와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동화 단계를 뛰어넘어 스마트 항만(Smart Port)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따라서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의 복합물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이 잠식하고 있는 물동량을 광양항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